■ 내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 / 양승혁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지사장 인터뷰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생명과 같은 것"

2018년부터 제주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 힘써
개인 맞춤형 운동 추천과 취업 연계도 병행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삶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각종 이유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인식개선 노력과 장애인 의무고용제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취업에 있어서 아직도 이들이 넘어야할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을 1㎝라도 낮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양승혁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지사장이다.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양 지사장을 만나봤다.

양 지사장에게 체육이란 저절로 관심이 가는 분야이자 평생 하고 싶은 일이다. 비록 첫돌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아마비로 그는 지체장애를 앓게 됐지만, 몸이 불편하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듯 그는 모든 스포츠 분야를 섭렵하며 즐기고 있다. 지금은 직접 스포츠를 하는 것을 넘어서 도내 장애인들에게 맞는 운동을 추천하고 취업까지 연계시켜주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 운동도하면서 취업까지 연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이 활동에 뛰어들었죠."

흔히들 나이가 들면서부터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다. 하지만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 막상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도 비장애인들이라면 뭐라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양 지사장은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찾는 사람이 없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탓에 열악하기만한 장애인 체육 환경도 개선하고 싶었다. 그렇게 2018년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도지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운동 환경 개선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갔다.

양승혁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지사장.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취업 문제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경쟁은 치열했다. 이마저도 탈락한 장애인들은 상실감만 더해갔다. 양 지사장이 고심끝에 내린 결론은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업이 적은 제주를 벗어나 전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다. 또 운동과 취업을 함께 연계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바로 전국 기업에 연락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일정 장소에서 운동을 하면 그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퇴짜도 많이 맞았다.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스스로 그 관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열정에 전국의 회사들은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도내에서 장애인 200여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제주장한장애인대상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설령 제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목표를 못다 이루더라도, 제가 앞길을 닦아 놓으면 후배들은 편하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지사장의 최종 목표는 약자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도사린 모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꿈꾼다. 그의 반짝이는 눈과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처럼 보였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300여 차례 112 신고 후 말없이 '뚝'
경찰 관심이 위기의 장애인 구했다

한 달간 112에 360건이 넘는 전화를 걸어 말없이 끊은 한 지적장애인이 경찰과 관계기간의 긴밀한 대처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 40대 지적장애인 A씨 가정에서 반복신고 접수가 들어온다며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는 관내 한 파출소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지난 2월 한 달간 365차례 반복했다.

경찰은 즉시 관련 보호시설 등과 긴급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A씨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당시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등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으며, A씨는 실종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라진 A씨를 찾기 위한 합동수색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5일 제주공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영양결핍과 고위험 빈혈 증상을 보였으며 혈액암이 의심돼 수술이 시급했다.

A씨의 모친이 치료 동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연락이 끊겼던 부친 연락처를 확보해 동의를 구한뒤 A씨의 치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응급치료비와 긴급생필품 구입비 18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모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김채현기자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

이승만사업회 등 소송 제기
1·2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도 "분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기념사업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선거비용 과다·허위 청구
제주도선관위 집중 조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비롯해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백금탁기자

산록도로가 혼잡한 이유 18일 제주시 산록도로에 고사리 채취객들이 타고 온 차들이 주차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림 해상서 어선 좌초

한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근해자망 어선 A호(42t·승선원 11명)가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승선원 11명은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선체 침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기자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

2022년 정부공식 무병묘
공급업체 선정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신비향, 수라향, 설국향
궁천 5년생, 홍미향(화분)
● 유라조생 1~3년생 ● 하례조생 1~4년생
● 궁 천 1~4년생 ● 레 드 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 카라향 - 원터프린스
★ 조 생 - 유라 - 궁천
★ 기 타 - 레몬 - 하귤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시정 조치 현황 · 농가 : 17 농가 · 업체 : 1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 락 처 : 010-3696-2057